미자립 교회 교역자 지원에 힘을 보태 주십시오!

주 안에서 한 공동체인데 빈익빈부익부가 가장 심한 곳이 한국 교회라 하는데 부끄러운 일입니다.

우리 교단에도 사역을 하면서도 월 백 만원의 생활비도 없이 생활하는 교역자가 31%라니 이 분들을 자립하는 교회들이 더 외면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.

19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(눅 16:19~21)

오늘도 자본주의 사회에 많이 있는 일이지만 이들의 사후에 하나님은

25아브라함이 이르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(눅 16:25)

부자는 풍성하게 누리면서 자기 대문의 거지 나사로는 안중에도 없었던 비인격자, 비신앙이었습니다.

오늘 우리가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면서 나눈다고 나눠도 아직도 나사로같이 배고픈 교역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은데 우리는 부자같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. 이 해를 보내면서, 또 더 가까워진 은퇴를 생각하면서 늦기전에 나누는 일도 더 신경 썼으면 합니다.

신년도에도 예산을 세워서 고르게 나누어지도록 총회 미자립지원위원회로 보내주시면 투명하게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

개인적으로 지원을 원하시는 분들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총회 입금계좌 **국민 076937-04-010330** 예금주 : (재)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

주후 2014년 11월 19일

총회장 백남선 목사 드림

백남선

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